

전남새마을회 우수농수산물 알리기 팸투어 큰 성과

3월~10월 홍보·농촌체험활동...전국 부녀회장단 등 300여명 참여
미역·다시마 310t, 천일염 1030t, 김장김치 10t, 새우젓 4t 등 판매
문화관광지 탐방 전남 역사·문화 관광자원 소개 관광객 유치 역할도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이하 전남새마을회)는 전남 우수농수산물알리기 팸투어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시군구 협의회장단과 부녀회장단 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했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전남 우수농수산물 알리기 팸투어는 전남 우수농산물 특강과 농촌체험활동, 주요문화관광지 탐방 등을 통해 전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을 팸투어 참여자에게 홍보해 우리 농수산물을 바로 알고 소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팸투어는 기상호조와 해풍을 맞고 자라 더 알차고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도군 특화작목인 미니밤호박, 태양과 바다와 바람의 신이 빛어낸 고귀한 자연의 보석이자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게르마늄 등이 함유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신안산 천일염, 육질 좋은 신안산 가을 새우젓 등을 홍보했다.

정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좋고 칼슘·철분·마

그네슘·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알긴산도 함유한 안도산 미역과 다시마 등 전남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새마을회는 전남 우수농산물알리기 팸투어 결과 서술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미역·다시마 310t, 천일염 1030t, 김장김치 10t, 새우젓 4t 등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팸투어 참가자들은 전남의 명소인 목포시 유달산 케이불카, 근대역사관, 여수시 해양케이불카, 돌산도, 순천시 순천만정원 등 전남의 명소들을 탐방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북 경주시 타임캡슐공원 일원에서 무안군 양파, 나주시 배, 영광군 보리쌀, 여수시 갯김치, 신안군 천일염 등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전남 우수농산물 시음·시식코너를 마련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남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우리 고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



양재원 회장

기의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관광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굴뚝없는 산업'인 만큼 지역의 모든 분야가 Blue투어 관광산업에 녹아들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양재원 전남새마을회 회장은 "전남산 우수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팸투어를 통해 전국 새마을가족들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만큼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여 믿음을 주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함께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생산과 제공,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관광산업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표=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전남새마을회 회원들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 타임캡슐공원에서 열린 새마을농촌사랑박람회에 참가 우리지역 특산물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의 섬·건강의 섬...신안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박차

지속가능 신안 정원도시 포럼

섬·생태경관·문화경관 활용

환경 특성 고려한 조성 방안 모색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1일 "지속가능 신안 정원도시 포럼"에서 신안 정원에 대한 설명과 기념사를 하고 있다.

부한 곳이다.

이러한 생태적 자원으로 다양한 생물 포유류, 양서류, 조류 등 8개 부류 5000여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도 참식나무, 후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와 예덕나무, 소나무 등 낙엽활엽수 그리고 곰솔로 대표되는 상록침엽수림 등 수심 여중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갯벌·연안생태계도 다양한 형태의 섬으로 해

안선이 복잡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갯벌지역 중 신안갯벌이 가장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안사구 생태계 또한 신안 서해안 남부 해안사구의 식생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종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위치적 중대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식생학회부설 하천습지식생연구소 최영은 소장은 "신안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자원으로 타 지역과 차별 있는 정원 조성, 신안이 보유

한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 활성화도도, 다양한 식물종과 도서해양축산 축의 신안정원조성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휴양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세계적인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고 용, 복합형 관광전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따플레옹바이오 정남철 대표는 "지역 특산 식품의 재배 소득 육성으로 인구유입 효과, 새로운 자원도입을 통한 신 성장 동력 확보, 지역 자원을 잘 이용하는 등 신안군이 기후변화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도시정원사업에 난대림 기후대인 신안군을 변화시킬 지원 수종"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수목정원관리원 남수환 정원진흥실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의 이용 공간, 정원활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변화, 젊은 층의 감성문화공간, 정원으로 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정원과 정원도시의 기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 미관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신안 정원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도초 대지 미술관 개관
수국정원 경유 버스노선 신설
가산선착장서 하루 5회 운행

신안군이 도초대지의 문화시설(숨결의 지구)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대지 미술관(숨결의 지구)이 위치한 도초도 수국정원을 경유하는 공영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

여객선이 도착하는 비금 가산선착장에서 도초 수국정원을 경유해 도초면까지 가는 간선버스는 1일 5회(출발시간 09:40, 13:10, 14:40, 15:40, 16:40), 도초 화도 선착장에서 수국정원까지 가는 지선 버스는 1일 4회(출발시간 09:00, 11:30, 13:40, 15:00) 운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초도 수국정원 내 위치한 대지 미술관(숨결의 지구)이 개관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